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김범준 유스티노, 경규림 비비안나

다음주 독서: 조정훈, 이제니수 로사

이번주 복사: 신승원 로이, 강선우 마르가리따

이번주 미사 해설: 유지원 카타리나

다음주 미사 해설: 전은숙 글라라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회 계: 정상혁 토마스 아퀴나스, 유현영 사도 요한

친교실 정리: 우리구역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헌금: \$ 278

감사헌금: \$ 60

매일미사: \$ 10

교무금: \$ 150

합계: \$ 498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 분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 양지웅 라파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추후 공지

예비자 교리

매주 목요일 저녁 8 시, 사제관, 김 아셀라 수녀님

학부생 성서모임

매주 월요일 저녁 8 시 30 분, 성당 사무실, 정원심 크리스티나

† <오늘의 묵상>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마태오 복음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뒤 제자들은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움츠려 있던 그들 앞에 부활하신 스승님께서 나타나시어 ‘세상 끝 날까지’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전교란 예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세상 끝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주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삶은 불안합니다. 공평하지 않게 보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물질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재물이 불안을 없애지는 못합니다.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셔야 불안을 몰라잡니다. 전교는 이러한 ‘예수님의 힘’을 전하는 일입니다.

‘힘 있는’ 전교를 위해서는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믿지 않으면서 남에게 권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내 ‘모든 것’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자신은 관리자일 뿐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하는 일이 잘될 때는 고백이 쉽습니다. 하지만 역경을 만나면 흐지부지됩니다. 세상은 실천하는 신앙인을 원합니다.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버티는 사람들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신앙인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말로만 전교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매디슨 한인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홍진국 클레멘스 (608) 231-2350

본당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thekccm>

[연중 제 29 주일]

2009 년 10 월 17 일

<제 1 독서> 이사야서 2,1-5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산으로 밀려들리라.>

<제 2 독서> 로마서 10,9-18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었습니까?>

화답송

◎ 주님은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를. 그분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그분의 오른손이, 거룩한 그 팔이 승리를 가져오셨네. ◎

○ 주님은 당신 구원을 알리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를 드러내셨네. 이스라엘 집안을 위하여, 당신 자애와 진실을 기억하셨네. ◎

○ 우리 하느님의 구원을, 온 세상 땅 끝마다 모두 보았네. 주님께 환성 올려라, 온 세 상아. 즐거워하며 환호하여라, 찬미 노래 불러라. ◎

○ 비파 타며 주님께 찬미 노래 불러라. 비파에 가락 맞춰 노래 불러라. 쇠 나팔 뿔 나팔 소리에 맞춰, 임금이신 주님 앞에서 환성 올려라.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 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 알렐루야.

+ 마태오 28,16-20

복 음

그때에 열한 제자는 갈릴래아로 떠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들은 예수님을 뵈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의 성가] 입당: 76 봉헌: 419 성체: 179 퇴장: 63

† <생명의 말씀>

우리가 기쁘게 살지 못하면서, 어찌?

안병철 베드로 신부 | 서울대교구 사무처장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되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아버지의 그러한 보편적 구원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라는 값비싼 희생을 치르셔야만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세상 안으로 파견하시며 당신의 값비싼 희생을 통해 무상으로 나누어주게 된 구원의 기쁨을 모든 이에게 전하라 명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오늘 복음에서 전해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선교사명이야말로 주님께서 남겨주신 ‘유산이자 명령’임을 다시금 확인시켜줍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교 신자로서의 정체성은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할 때 비로소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 곧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에 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필요조차 없기는 하지만 무엇을 기쁜 소식으로 선포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이라는 용어는 본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나 전쟁을 종식시키는 의미에서의 평화조약 체결 또는 승전 선포나 새로운 임금의 등극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기쁨’을 표명하기 위해 사용되어왔습니다. 교회는 그때까지 사회적, 정치적인 용도로 사용되어 오던 바로 그 복음이라는 용어를 그리스도 사건을 지칭하기 위해 갖다 쓰면서 주님이신 그리스도 사건을, 구원의 기쁨을 살게 하는 더할 나위 없는 결정적 사건으로 이해하고 선포하기 시작한 것 입니다.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자유롭게 해 주셨기에 우리 모두가 온전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구원관은 바로 복음 자체인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적 죽음을 통해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자유롭게 해 주셨기에 우리 모두가 온전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그리스도교 신자들의 구원관은 바로 복음 자체인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늘을 전교주일로 지내면서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조차 아직도 이기적인 장벽을 헐어 내지 못하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선교 사명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줍니다. 문제는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상의 삶을 참으로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가와 그분을 전 실존의 주님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의 사명을 실천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은 복음을 살아야 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이 기쁨의 원천이 된다는 구체적인 확신 없이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은 그리 간단치 않을뿐더러 고통스럽기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언약해 주십니다. 그보다 더 큰 희망과 격려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하지만 복음을 살며 전해야 할 신앙인들이 참으로 기쁘게 살지 못하면서 어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이 혹시라도 이 순간 우리 모두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지는 않지요?

† <알려드립니다>

- ❖ St. Paul 성당 사정에 따라, 다음주 (10/24) 와 11/7 미사는 일요일 오후 2시30분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두 주일동안 미사는 고무찬 분도 신부님께서 집전해 주시겠습니다.
- ❖ 2009-2010년 예비자 교리가 김 아셀라 수녀님 지도로 매주 목요일 저녁 8시에 사제관에서 있습니다. 10월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 세례를 받으시고자 하는 예비자분들이나 가톨릭 교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 널리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 교우 주소록을 업데이트 중입니다. 성당 홈페이지(<http://club.catholic.or.kr/thekccm>) 회원 주소록 란에 올라와있는 주소록을 확인하시고, 혹 주소록에 빠져있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신 교우분들은 정태준 요셉 형제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록이 확정되는대로 교우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 주소록 파일을 열어보실려면 회원으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 등록 방법은 홈페이지 "공지사항" 란- #185-에 올라와 있습니다 . 회원 등록을 부탁드리며, 따로 주소록 파일이 필요하신 교우분들은 사목회장에게 알려주시면 주소록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마태 28,20).